제5대 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취임

5월 21일 정법사에서 취임식
문화재지킴이 발대식도 진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파라미타 협회장으로 추대된 광우 스님과 새 문화재지킴이 대원들이 손하트를 하고 있다.


추대패를 받고 있는 광우 스님(오른쪽).

사)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김재호)는 5월 21일 창원 정법사 불교회관 3층에서 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취임식을 봉행했다.

취임식에는 경남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 광우 스님(정법사 주지)을 비롯해, 파라미타사무총장 혜교 스님, 해덕사 법진 스님, 김재호 청소년협회장, 양수만 직전회장, 하병형 수석부회장, 박해덕 경남포교사단 단장 외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취임식은 청소년활동 영상시청, 개회선언, 국민의례,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 소개, 경과보고, 추대패 수여, 선서문 낭독, 분회기 전달, 우수지도자 및 회원 표창장 수여, 회장 인사말, 격려사(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축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총재 범해 스님), 발원문, 단주 및 뱃지 증정, 사홍서원, 폐회선언, 공지사항,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광우 스님은 "이날 자리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우수한 문화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함으로써 참된 삶을 보내고 마음의 안식처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인의 활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파라미타 총재 범해 스님은 사무총장 혜교 스님 대독을 통해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1996년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를 목표로 설립 후 우리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애호의식을 심어왔다"며 "청소년 파라미타 활동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밝고 희망차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건넸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청소년회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애호의식을 갖고 미래의 문화유산 보호 주체로서 나서자"며 "우리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지킴이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제 총명사, 삼존불 개금불사 성만


거제 총명사는 5월 22일 삼존불 개금불사를 봉행했다.

쌍계총림 거제 총명사(주지 호석)는 5월 22일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봉행했다. 불사에는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총명사 호석 스님, 쌍계사 본말사연합회회장 이암 스님, 강주 대각 스님, 고성 옥천사 종성 스님, 통영 용화사 종묵 스님, 남해 용문사 승원 스님, 해원정사 원허 스님, 염불암 성전 스님, 쌍계사 사중스님, 박기련 총명사 신도회장 외 사부대중 200여 명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예불의식, 2부 삼존불회향법회봉행, 삼귀의, 반야심경, 주지 호석 스님의 경과보고 및 인사말, 내외빈 소개, 박기련 신도회장 환영사, 쌍계사 본말사연합회회장 이암 스님 격려사, 청법가, 입정,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 법문, 사홍서원, 회향 순서로 진행됐다.

총명사 주지 호석 스님은 "항상 기분 좋은 하루다, 더욱이 15년만의 개금불사법회가 성만되어 감개무량하다"며 "한분 한분의 원력으로 감동을 받았다. 앞으로 잘하라는 마음으로 환희심 나는 사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오늘 청명한 날씨는 개금불사를 잘 모셔 부처님 광명이 곳곳에 비춘 것"이라며 "각자 욕심을 내려놓고 화합하면 사회가 밝아지고 여유로워 질 것이다.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은 무량공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련 신도회장는 "도량 가득한 스님과 사부대중의 참석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개금불사가 원만 회향되기까지 총명사 스님과 신도분들의 신심과 원력이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덕사, 경허선사 열반 110주기 추모다례 봉행

구한말 쇠락한 선풍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한국불교 중흥의 기초를 놓은 경허선사 열반 110주기를 맞아 추모다례가 봉행됐다.

덕숭총림 수덕사는 5월 24일 대웅전에서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을 비롯한 문도스님들과 수덕사 본·말사 선방에서 정진중인 수좌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추모다례를 봉행하고 스님의 유훈을 기렸다.

설정 스님은 "경허 노스님은 부처님 당시 이심전심으로 내려오는 교외별전인 불립문자 견성성불의 법맥을 이어 쓰러져가는 한국불교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대역보살"이라며 "오늘 다례를 맞아 경허선사를 선양하는 길에 정성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허 스님은 1849년 전주에서 태어나 9세 때 과천 청계사로 출가했으며 14살에 계룡산 만화강백 문하에서 내외전을 섭렵했다. 스님은 수월, 혜월, 만공, 한암스님 등의 선승을 길러내며 일제강점기 한국불교 중흥에 이바지했다. 스님은 1912년 음력 4월25일 세수64세, 법납 56세로 함경도 갑산 웅이방에서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노덕현 기자



정토원, 故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재 봉행

김해 봉화산 정토원(이사장 선건)이 5월 23일 정토원 대법당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추모재에는 정토원 등명 스님, 선건 이사장, 이장명 신도회장, 이기재 진영문화예술연합회 회장, 진영하모니합창단 등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으며 법회는 바라무와 합창단의 추모공연으로 진행됐다.

선건 정토원 이사장은 "지난 15년 전 노무현 前 대통령이 봉화마을 귀향 후 문화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던 생전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청소년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눈길'

진해 대광사서 5월 21일
제22회 산사음악회 개최



진해 대광사(주지 무경)는 5월 21일 진해 대광사 대웅전 뜰 앞에서 제22회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행사에는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주지 무경 스님, 경주 기림사 종법 스님, 재)한가람문화재단 이사장 원정 스님, 정인사 원행 스님, 불곡사 도홍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천자암 해초 스님, 송림사 지암 스님, 천웅사 성우 스님, 자비사 명종 스님 외 지역스님, 유원석 대광사 신도회장, 김성철 대광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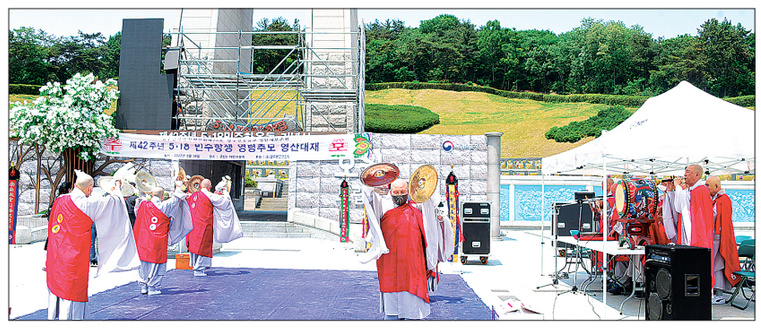
식전행사로 대광사 다도반 시라회 헌다시연이 진행됐으며, 타종, 예불에 이어 대광사 회주 운성스님 인사말, 2부 반야찬불단 공연 및 청소년 댄스(진해청소년전당), 각종 공연 및 내 외빈 소개,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 인사말, 3부 마당놀이 춘향전 및 심청전 공연(김성녀,김성예 정준태 외 다수), 회향 순으로 진행됐다.

대광사 회주 운성 스님은 "꽃이 피고 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시절이다. 봄이 축복이라 생각하며 일념으로 생활하고 극락 이루시길 바란다"며 "산사음악회서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지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불자 김성녀 씨는 "청소년들의 당차고 발랄하고 재능 있는 공연을 보면서 세계를 제패하는 면모를 볼 수 있었다"며 "이곳 음악회에서 하나가 되어 뜻깊고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영산재보존위, 5.18추모 위령재 열어


광주영산재보존위 스님들이 바라춤을 추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는 추모 위령재가 봉행됐다. 사단법인 광주영산재보존위원회(회장 월인, 법륜사 주지)는 5월 18일 국립5.18민주묘역에서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령재를 봉행했다. 군부의 총탄에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이날 천도재는 광주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의식 중 지장청, 작법바라가 진행됐다. 이들 의식은 1980년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월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5.18 영령들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천도의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매년 기도를 통해 5.18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영산재는 1981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매년 시연을 이어오다 1992년 전통불교영산회가 창립되며 정립됐다. 2006년 광주영산재보존위로 사단법인 등록을 한 뒤 2014년 광주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